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 9:27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마 4:4

지난달 말 어느 날 한 기사가 저의 시야에 들어 왔습니다.

평창올림픽 2관왕 바이애슬론 (Biathlon) 여제 달마이어 (Dahlmeier) 산악사고로 사망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에게 생소한 바이애슬론이란 종목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겨울 스포츠라고 합니다. 독일올림픽위원회가 무거운 마음으로 라우나 달마이어에게 작별인사를 전한다는 기사와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할말을 잊었다는 사연이 실려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고산지대에 등정하다 낙석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녀는 겨우 31살의 창창한 젊음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동의 조건임을 절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 죽음은 반드시 닥아선다는 사실에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터득한 현자들은 죽음은 자연법상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 죽음을 넘으려는 것은 욕심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관 속에 들어가드라도 막말을 하지마라”는 서양의 한 속담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삶의 흐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세상이 지속 가능하려면 태어남만 있어서는 유지될 수 없다. 죽음 없이 태어남만 있다면 자연법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특히 불가의 생각인 사라지고, 생겨나고, 반복하며, 존재하는 순환의 논리와 맞닿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체계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살아 있지만 죽은 거와 같고 죽어 있지만 살은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살았다거나 죽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시간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지는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법칙의 순환이란 영겁의 과정에서 그냥 실존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 믿는자는 항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리 죄의 댓가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죄 때문에 인류 역사상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한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27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며 죄 댓가로 필히 죽어야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고린도전서 15:26에서 궁극적 (주님의) 적이라 공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0:14에서 그 죽음은 끝내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정의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담이 사과를 따 먹기전 바로 죽음이 부재했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그 태초로 복귀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자들은 죽음을 정복하는 그 부활의 약속에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성경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믿는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부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 넘어 미지 세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 합니다. 죽은 후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합니다. 나는 존재하는가? 나는 우주 에너지로 흡수되어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가? 사후 내가 존재 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인가? 영적 존재인가? 나란 영적 존재는 의식하는가? 그 영적 존재는 언제까지 구천을 떠돌아 다녀야하는가? 기간은 불가에서 말한 49일인가? 믿는자의 경우 천국에 언제 가는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이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묻니다.

구체적 상당 부분은 베일에 싸여 있지만 성경은 이에 관하여 사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후 문제에 관해 많은 왜곡과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죽은 후 그 실존은 우주의 에너지로 흡수되어 망각 속으로 사라지도 않고 더욱 인가응보에 의해 인간 또는 짐승으로 환생하지도 않습니다. 사후의 우리 영적 존재는 구천을 배회하지 않습니다. 더욱 49일간 떠돌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드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 사태전전의 즉각성과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은 후 즉각적으로 그것이 천국이든 나락이든 방향이 정해지고 즉시 결정된 곳으로 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방향의 결정은 죽은 후가 아닌 이 땅에서 살 때 결정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따라서 사후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은 부질없을 뿐 아니라 그런 소리를 하는 종교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는 떠났습니다. 관련된 성경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39-43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오늘”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더욱 49일 후도 아닌 바로 오늘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육신을 떠나 구천에서 헤매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옥이든 천국이든 갑니다. 성경에서 사후 우리의 영적 존재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3:36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 결정됩니다. 더욱 죽은 후의 영혼을 구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은 망자를 좋은 곳에 보내려고 49일 목탁을 수 없이 두들겨도 위령미사를 드리고 위령미사 봉헌금을 두둑히 바쳐도 그것은 옛말에 사후약방문이라고 마치 죽은 사람에게 약 처방을 써주는 꼴과 같습니다. 돈은 망자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산자를 위해서 쓰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운명이 이 땅에 살 때 결정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마음 쓰이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포기마시고 지금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간청하거나 많은 형제자매들의 중보에 힘을 입거나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시는 모든 진로를 간구하십시오.

죽은 망자가 육신을 떠나도 의식합니까?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성경은 분명 보고, 말하고, 체감하고, 의식하는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19-31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황금 만능주의에 심취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경고로 목사님들이 널리 비유로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과녁이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라는 전제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닌 예수께서 목도하신 진실의 영적현실이란 강력한 소리가 미국 신학계에 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거지에 나사로라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유라면 나사로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망자가 육신은 없지

만 보고 말하고 느끼는 의식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사후 의식하는 체감이 없다면 천국에서 기쁜 감격이나 지옥에서 징벌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망자의 의식 활동이 없다면 특히 지옥에서 징벌의 효과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뭘 상관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뺨을 못 치십니다.

인간은 살아서는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체를 입습니다. 육신을 떠난 망자는 부활체를 입기 전 무슨 형태로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공간에 그냥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나요? 사실 이 대목에 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은 망자들이 육신과 부활체 사이에 영어로 표현하면 intermediate body "중간체"를 입고 있지 않은가 추정합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고 다만 일부 학자들의 지적 추론의 영역입니다. 영어 성경은 육신을 **bodily form** (골 2:9)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도 부활체도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 **form** 즉 형태입니다. 부활하기 전 망자의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국말로 번역된 중간체를 일시적으로 입고 모든 의식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행선지인 새 하늘과 새 땅 (계 21:3) 또는 지옥의 불바다 (계 19:20)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경우 죽은 영혼이 있던 지옥도 끔찍한데 하나님 심판의 결과로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의 불바다라는 말씀에 일부 사람들은 보편적 구원론이란 것을 들고 나옵니다. 뭘 소리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언제가는 Second chance를 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모두 구원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이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흘림이 헛 수고가 됩니다.

여기에 최종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12에서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서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십시오.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거듭 태어났다 말합니다. 거듭 태어남은 단순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며 변화이며 또한 명백한 증거도 남깁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방언요? 방언은 소중한 은사이지만 귀신도 때론 중도 한 다 들었습니다. 역으로 진정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러

징후가 언급되지만 중요한 딱 한 가지만 논하겠습니다.

지난 달 하나님에게 가신 존 맥아더 (John MacArthur)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완전히 부재하다면 가장 분명한 빨간 신호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이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성경책을 소유할 수도 있으며 가끔 성경구절도 하나 인용할 수 있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 탄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가를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음식을 갈구한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혼 즉 거듭난 영혼은 영적 양분을 간절히 원하며 그 양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정곡을 찔렀습니다. 또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2:2을 인용 거듭난 영혼은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먹고 자라 구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갓난 아이가 울음소리가 없고 배고픔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향한 진실하고 지속적 이끌림이 없다면 불길한 징후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갈증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4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반박하셨습니다. 예수의 선언에는 신명기 8:3의 말씀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는 우선권이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말씀에 생명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에 지속적인 이끌림은 거듭난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욱 요한복음 17:17에서 예수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26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따릅니다. 말씀이 부재한 곳에 변화가 없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붙잡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군에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참여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실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첫 변화의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넘으면 주님의 이름을 높히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에 감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